



**니카 주판치의 거울**  
니카 주판치는 할머니의 베너티 테이블에서 영감을 받아 움직이는 거울을 만들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주변까지 볼 수 있는 독특한 거울이다.

**특별한 것들의 상호작용**

씨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블로 슈타클레프와 씨의 새 컬렉션을 담당하는 디자이너 니카 주판치는 모두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당** 신의 과거 경력과 브랜드가 시작된 계기, 아이디어 모두 흥미롭다. 전 세계 많은 브랜드가 여러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수많은 제품들을 쏟아낸다. 그런 상황인데도 디자이너 한 명의 정체성이 담긴 컬렉션 하나를 매해 선보인다는 건 실험적이다.

**파블로 슈타클레프(이하 파블로)** 하나의 컬렉션을 발표하고 제품을 완성해 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럭셔리한 것은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우리는 삶의 시간이 깃든 제품을 원한다. 때문에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해 적당한 생산자를 찾고 참신하고 고급스러운 재료를 사용해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또한 각기 다른 제품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 연결되는 컬렉션을 창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도 투자한다. 예를 들어 니카와 작업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우리 그간 16개 제품만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계속 주문이 들어온다. 럭셔리한 시간을 반영하고, 그 시간을 발전시킨다. 이는 더 나은 소통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곧 브랜드 씨다. **컬렉션 파 II 그리고 니카 주판치의 컬렉션 III의 차이점은 뭘까?**

**파블로** 디자이너이다. 하지만 세 컬렉션 간에는 분명 시너지가 있다. 나는 디자인 배경도 없고, 디자이너도 아니다. 또한 이 분야에서 나만의 시각이 형성되지도 않았다. 때문에 각 디자이너들이 재료와 색, 그들의 특정한 미학을 제안하면 나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다. 이 관계는 생산자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디자이너, 생산자 모두 같은 선상에서 함께 만들어간다. 특히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창조력을 씨의 정체성 안에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 니카의 컬렉션 III의 '프라이드 미러(Pride Mirror)'를 먼저 예로 들

**뜻밖의 순간을 담아**

최고 소재를 사용한 독특한 수공예품이 런던에 처음 선보였다. 2008년 일이었다. 올해로 8년째 접어든 씨(Sé)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씨는 예술 작품을 연상케 하는 실용적인 컨템퍼러리 럭셔리 가구를 선보인다. '한 명의 디자이너와 하나의 컬렉션을 선보인다'는 콘셉트는 씨의 정신이다. 프랑스 디자이너 다미앙 랑글루아-모린(Damien Langlois-Meurinne)의 컬렉션 I을 시작으로, 스페인 디자이너 하이메 아온(Jaime Hayon)의 컬렉션 II 그리고 슬로베니아 출신 디자이너 니카 주판치의 컬렉션 III까지 유럽의 여러 디자이너들과 최고의 제작자가 씨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일련의 컬렉션들은 전 세계 언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씨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블로 슈타클레프(Pavlo Schtakleff)와 대화하며 브랜드 스타일이 단지 디자인이 아닌란 걸 깨달았다. 예술을 넘나드는 영역과 숨겨진 스토리 역시 발견했다. 그리고 왜 올림피아 테이블(Olympia Table)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인지 궁금증도 풀렸다.

Words&Photography 레이 문(moonraystudio) Editor 김중훈

**점** 은 시절 뉴욕과 런던을 오가며 가구 소매업계에서 밑바닥부터 일해온 씨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블로 슈타클레프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라비 하지(Rabih Hage)를 만나 소매업에 관해 사업적 지식을 쌓았다. 이후 이탈리아 브랜드 플로우(Flou)와 협업하는 미국 회사에서 또 다른 경력을 쌓으며 뉴욕 디자인계에서 일했다.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 그는 영국 가구 시장에서 컨템퍼러리와 럭셔리 사이의 큰 틈을 발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가 마크 샤리피(Marc Shariff)와 공동으로 씨를 창업했다. 콘셉트는 이랬다. 매해 한 명의 디자이너가 하나의 컬렉션을 발표하는 것. 영국 가구 브랜드 씨의 시작이었다. 지난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기간 중 디자이너 하이메 아온은 브랜드 씨 팝업 숍에서 그의 예전 작품들과는 다른 부드러운 곡선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한 의자에 앉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같은 날 다른 시각, 스페인 테이블에 광내는 데

집중하던 파블로는 우연히 길을 지나던 노신사를 맞이했다. 그 둘은 약 20분간 이 장소에 놓인 가구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노신사는 '몇 년간 본 의자 중 최고'라며 명함을 놓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오프닝 파티 초대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명함을 꺼낸 파블로는 그제야 깨달았다. 세계 최고 이탈리아 가구 회사 폴트로나 프라우 그룹의 대표인 줄리아노 카펠리니가 방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뜻밖의 순간과 마주친다. 지금과는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순간. 하지만 그 순간은 준비된 자에게나 통하는 말이다. 밑바닥부터 하나씩 배우고 열정을 잃지 않고 한 단계씩 올라온 파블로에게 그 순간을 맞이할 자격이 있었다. 하이메 아온과의 협업도, 영향력 있는 이탈리아 여성



갤러리스트 로산나 올란다가 사랑한 디자이너 니카 주판치와의 만남도 그 예컨 뜻밖의 순간이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매년 4월 디자인 페어가 열린다. 전 세계 디자인계를 선도하는 이 기간에는 밀라노 도시 전체가 전시장이 된다. 그 일환으로 로산나의 안목으로 선택한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들이 아름다운 과거 공장에 전시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장소는 오래전 그녀가 마당에서 술을 한잔하며 영감을 받은 곳이다. 이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디자인이라는 큰 영감을 주는 공간이 됐다. 합당한 '때'와 그럴듯한 '공간'이 만났을 때 우리 뜻밖의 순간을 경험한다. 이런 순간이 씨를 디자인계 지도 위에 도드란 점을 찍게 했다. 올해 밀라노 디자인 페어를 위해 로산나 올란다가 공간으로 다시 돌아온 씨는 니카 주판치와 함께 또 다른 챕터를 열고 있다.







해준 공간이다. 세의 컬렉션들을 전시하면서 니카의 작업을 접하고 만날 수 있었다. 특별한 공간에서 발생한 우연한 만남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작품을 알고 이해했으며, 어느 날 우리의 방향성이 일치한 것이다. 하이메 또한 이곳에서 전시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니카의 작품을 선보였다. 세의 컬렉션은 스파치오 로산나 올란디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간다.

간에 잘 소통했기 때문인 거 같다. 우리는 서로 브랜드 철학과 디자인 철학을 이해했고,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융합으로 전혀 새로운 제품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완벽한 협업을 보여주는 것 같다.**

니카 밀라노의 로산나 올란디 갤러리에서 하이메 아온이 디자인한 세 컬렉션 II를 본 걸 기억한다. 그는 세와의 협업에서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보여줬다. 그를 대표하는 환상적이고 강렬한 디자인이 아닌 정제된 간결함이 돋보였다. 그리고 세의 다른 컬렉션들을 보고, 관심이 깊게 생겼다. 다음 해에 파블로와 나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 대화하며 서로 디자인 열정이 통한다는 걸 알았다. 세와의 작업은 나 자신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다른 브랜드와 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는 시적인 내 디자인을 브랜드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본질과 부드럽게 결합시켰다. **올해 밀라노에서 발표한 새로운 컬렉션에 대해 말해달라.**

파블로 지난해 선보인 제품들과 비슷한 느낌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품들이 한데 모여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여성들에게 특히 크게 인기 얻은 올림피아 베너티 미러(Olympia Vanity Mirror)를 2m 정도 높이의 대형 제품과 화장대에 놓는 작은 제품으로 제작했다. 또한 구조적인 면에서 간결하지만 과장되게 느껴지는 형태의 스테이 암체어와 소파(Stay Armchair and Stay Sofa), 고전적인 고급스러움이 가미된 올림피아 스톨(Olympia Stool), 이야기가 담긴 올림피아 사이드 테이블(Olympia Side Table), 공장에서 제작 과정을 본 스테이 다이닝 체어(Stay Dining Chair), 지난해 선보인 강한 크기로 제작했다. 지난해에는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질감과 미학으로 표현했다. 이 모든 것들은 같은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색다른 느낌을 줄 거다. 이번 전시 역시 로산나 올란디의 공간에서 펼쳐졌다. 밀라노에 있는 스파치오 로산나

올란디는 19세기 타이 공장이고, 그녀는 그 공간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보존해왔다. 과거의 오라와 로산나의 미학이 어우러져 그 공간만의 특별한 느낌을 간직한다. 그곳에서 세는 5년째 전시했다. 니카의 컬렉션도 4~5년째 선보이고 있다. 이 공간과 브랜드, 니카의 디자인 간 서로 대응하는 뭔가가 있는 거 같기도 하다.

**파블로 스파치오 로산나 올란디는 세와 니카의 컬렉션 II를 가능하게**



**스파치오 로산나 올란디**  
5년째 세의 전시를 공개하는 공간. 오래된 공장으로 만든 전시공간이다. 문 닫은 공장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대신 수많은 디자이너의 작품을 끌어안았다.

**브랜드가 이제 8년째를 맞이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당신에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

파블로 살아남기! 당신은 역사를 살 수 없다. 역사와 신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쌓이는 거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많이 비평할 거다. 어떤 것들은 소중한 조언이 되기도 한다. 열린 귀와 마음으로 모든 비평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확신시키고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에서야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어 그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비즈니스에서 당신은 멈추면 안 된다. 도전은 이거다. 진행형. 자기 신념을 잃지 않는 게 계속 나아가야 한다. **세와 협업하는 것 외에도 니카는 다른 브랜드 또는 본인만을 위한 컬렉션을 계속 진행한다. 예술과 디자인 사이에서 당신의 작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 같은가?**

니카 계속되는 것이다. 매년 새로운 작업물을 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면 새로운 도전이 생긴다. 이걸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열정을 안겨준다. 직업상의 이유로 나는 내일 누군가와 작업할지 모른다. 때마다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흥미로운 점은 내게 일을 의뢰한 회사들이 모두 특별하다는 것이다. 그들만의 강력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브랜드와 작업해온 거 같다. 제품 디자인도, 인테리어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인테리어는 내게 새로운 도전 정신을 주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에 에너지를 쏟고 싶다. 디자이너는 자기 미학과 감수성으로 제품을 만들고, 자기 방법으로 공간을 이해하고 창조한다. 앞으로 진행할 새로운 프로젝트는 내겐 늘 새로운 도전이다.

수 있다. 아주 독특한 제품인데, 이 역시 세의 정체성을 담아 디자인했다. 올림피아 드레싱 테이블(Olympia Dressing Table) 또한 니카만이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내가 늘 하고 싶던 제품이기도 했는데, 꼭 여자 디자이너여야만 했다. 니카는 내가 상상한 그 느낌을 가장 잘 표현했다. 여기에 위스퍼 박스(Whisper Box) 액세서리를 추가했는데, 시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돼 한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밀라노 디자인 페어 기간 동안 로산나 올란디 공간에 전시된 니카의 컬렉션 II는 브랜드 세의 정체성이 가장 잘 스며든 제품이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렇다면 니카의 미학은 여기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Ljubljana)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당신이 이곳에서 경험한 어떤 시절이 궁금하다.**

소통해야 한다. 여행에서 받은 영감들이 제품에 하나의 스토리로 담기는 거 같다. 내 방식이기도 하다. 항상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런 욕망이 제품 디자인으로 발산되는 것 같다. 제품을 통해 대화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발표해 디자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글래머러스한 곡선의 미학이 반영된 컬렉션 III의 올림피아 테이블은 브랜드 세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나?**

**완벽한 협업**  
세는 디자이너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컬렉션 II에 참여한 하이메 아온은 기존 자신의 디자인과 다른 간결함을 선보인 바 있다. 니카 주관하는 세의 자유를 통해 시적 감성을 가구에 담을 수 있었다.



파블로 맞는 말이다. 클래식하면서도 컨템퍼러리한 디자인은 당연하고, 상호작용도 있어야 한다. 테이블의 거울과 그 앞에 앉은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거다. 중간 거울 양 옆으로 움직이는 거울이 부착돼 있는데, 이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동시에 뒤를 포함한 주변 상황을 모두 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준다. **니카 할머니의 베너티 테이블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었다. 어릴 때 본, 세 개로 구성된 거울을 발전시켜 움직이는 거울을 만들었다. 완전히 컨템퍼러리한 문맥에서 새로운 방향의 제품이 완성되었다. 이걸 어쩌면 브랜드와 디자이너**